

After the COVID-19 Pandemic, New Tasks and Directions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n Churches*

Jeong Joon Kim**
(Sungkonghoe University)

Abstract

Purpose of stud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risis situation of Christian education experienced by Korean churches and theological education institutions after the COVID-19 pandemic, and to seek new tasks and directions that Korean churches should prepare for the recovery and growth of Christian education.

Research Contents and Methods: Before reviewing the current crisis experienced by Korean churches and theological education institutions after the COVID-19 pandemic, the terms and concepts of Christian education are first reflected. In addition, the causes and phenomena of the Korean church and Christian education crisis after the COVID-19 Pandemic are examined through statistics, media, and church field data. The researcher identified the causes of the crisis experienced by Korean churches and theological education institutions as follows: 1. The influence of COVID-19 Pandemic: suspension of faith and educational activities, 2. The age of population cliffs: increase in the elderly vs. decrease in young people, 3. Neoliberalism: marketism, infinite competition, efficiency, winner-take-all, 4. post-religious era: post-Christianity, weakened communitarianism, and reduced number of Christia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four points as follows: 1. Crisis of church education: suspension of operation of Sunday school and feeling of failure, 2. Crisis of faith of young generation: nurturing unstable future church leaders, 3. Faith of adult generation: crisis and hope, 4. The faith of the elderly generation: light and shadow.

Conclusion and Recommendations: The new task and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that Korean churches should pursue after the COVID-19 pandemic are as follows: 1. New conversion of Sunday school faith education: From schooling-paradigm education to faith education that integrates family and generation. 2. New conversion of theological education: From knowledge education to spirituality training. 3. Re-ignition of faith education for middle-aged adults: Activation of faith through worship and small groups, 4. New conversion of church elder education: The need to change from caring objects to creative religious life.

Key Words

The COVID-19 Pandemic, Christian Education, Sunday School, The Younger Generation, The Adult Generation, The Elderly Generation

Received May 19, 2024 Revised June 28, 2024 Accepted June 29, 2024

* This article is a modified version presented at the 50th Anniversary Conference of the Korean Association of Christian Studies(2023.11.4.. Presbyterian Theological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 Author : Jeong Joon Kim, Research Professor, Sungkonghoe University, kjj-2001@hanmail.net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

김정준**
(성공회대학교)

논문 요약

연구 목적: 본 논문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와 신학교육 기관이 경험하고 있는 기독교교육의 위기상황을 검토하고, 이후에 한국교회가 기독교교육의 회복과 성장을 위하여 준비해야 할 새로운 과제와 방향은 무엇인지 모색하고자 한다.

연구 내용 및 방법: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와 신학교육 기관이 경험하고 있는 현재의 위기 상황을 검토하기 전에 먼저 기독교교육의 용어와 개념을 성찰한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와 기독교교육 위기의 원인과 그 현상은 무엇인지 통계 및 언론, 그리고 교회 현장의 자료를 통하여 검토한다. 연구자는 한국교회와 신학교육 기관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의 원인을 1.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신앙과 교육 활동의 정지, 2. 인구절벽 시대: 노인 증가 vs. 젊은이 감소, 3.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무한경쟁, 효율성, 승자독식, 4. 탈종교시대: 탈기독교, 공동체성 약화, 기독교 교인수 감소 등으로 파악한다. 그 결과 나타나는 현상을 네 가지로, 1. 교회교육의 위기: 주일학교의 운영 중단과 열매감, 2. 청년세대의 신앙 위기: 불안한 미래 교회지도자 양성, 3. 성인세대의 신앙: 위기와 희망, 4. 노인세대의 신앙: 빛과 그림자 등으로 설명하였다.

결론 및 제언: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가 추구해야 할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을 1. 주일학교 신앙교육의 새로운 전환: 가정과 세대를 통합하는 신앙교육으로, 2. 신학교육의 새로운 전환: 지식교육에서 영성훈련으로, 3. 중년기 성인의 신앙교육 재점화: 예배와 소그룹을 통한 신앙의 활성화, 4. 교회 노인교육의 새로운 전환: 돌봄 대상에서 창조적 신앙생활로 전환해야 할 것 등으로 제안하였다.

〈 주제어 〉

코로나19 팬데믹, 기독교교육, 주일학교, 청년세대, 성인세대, 노인세대

□ 2024년 5월 19일 접수, 2024년 6월 28일 심사완료, 2024년 6월 29일 게재확정

* 이 논문은 한국기독교교회 50주년 기념 정기학술대회(2023.11.4. 장로회신학대학교)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성공회대학교 연구교수, kjj-2001@hanmail.net

I. 들어가는 말

2023년 5월 11일,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심각 경보를 해제하면서 공식적으로 코로나19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종식되었음을 선언했다. 2020년 1월 20일 이후 3년 4개월 만에 코로나 이전으로 돌아간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 사회에 끼친 손실은 누적 사망자 35,000여 명, 막대한 경제적 손실, 사업장의 폐업과 해고,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 우리 일상생활에 끼친 영향은 광범위하다(강원일보, 2023.5.12.). 이 기간 한국 사회의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예술 등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큰 어려움을 겪었다. 모든 종교 단체들은 물론 기독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엄청난 손실을 입었다. 기독교회가 입은 손실의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의 위협을 피하기 위하여 정부가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social distancing)에 있다. 즉,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사람들이 만나고, 모이고, 접촉하는 것을 금지하는 정책을 강제한 것에 있다. 모든 움직임과 모임은 제한되거나 정지되어야 했다. 기독교 신앙생활은 '교회'(教會)라는 말에도 드러나듯, 기독교 신앙의 가르침을 따르는 무리들이 모인 공동체를 의미하는데, 사람들이 무리가 되어 만나고, 모이고, 무리가 되어 모일 수 없고 접촉할 수 없으니, 신앙공동체로서 기능을 유지할 수 없었던 것이다.

초대교회 이래로 교회의 기본적 사명과 기능은 예배, 선교, 교육, 봉사, 친교 등으로 설명해 왔다(Harris, 1997, 89-199; Miller, 1988, 43-54). 그런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한국교회의 사명과 기능은 3년 4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제한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는 그동안 시행해 왔던 기독교교육 역시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성인교육, 소그룹, 노인대학 등 모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중단되거나, 아예 폐쇄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종식된 이후 한국교회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예배, 전도와 선교, 소그룹 활동은 물론 기독교교육의 전반적인 회복을 위하여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 기독교교육의 위기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가장 큰 원인이지는 않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더 큰 흐름으로 인구절벽 시대 노인인구 증가와 젊은 인구의 감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탈종교현상 등이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는 그 의미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방향과 과제는 무엇인지 제안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내용은 I. 들어가는 말, II. 기독교교육의 용어와 개념, III.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와 기독교교육 위기의 원인, IV.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기독교교육의 위기 현상, V.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 VI. 나가는 말 등의 순서로 전개하고자 한다.

II. 기독교교육의 용어와 개념

본 연구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기독교교육은 무엇인지 그 용어가 뜻하는 의미를 설명해야 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교육의 개념을 각자 다양하게 정의해 왔기 때문이다(손원영, 2002, 21).

일반적으로 기독교교육은 “교회(학교)에서 하나님의 말씀 곧 기독교의 진리를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것” 또는 “성서와 전통,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 등을 학습자들에게 잘 전수하여 그것들을 실제의 생활에 적절히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응용적 활동”이다. 손원영(2002)은 이러한 개념 정의가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여기에는 세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한다. 첫째, 기독교교육은 교사가 학습자에게 일방적으로 교육 내용을 전수하는 전달 행위가 아니라 는 점이다. 이런 일방통행식의 교육 내용 전달 행위의 가장 큰 문제는 교사를 일방적 정보 제공자로, 학생을 무조건적 수용자로 본다는 점이다. 둘째, 전통적인 기독교교육의 개념은 가르쳐야 할 교육 내용을 고정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나, 실제로 그것은 완전히 고정화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전통적 기독교교육의 개념 속에 내재된 고정된 교육 내용만을 강조하면 자칫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역사를 기록된 성서로 축소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셋째, 전통적인 기독교교육의 개념은 기독교교육을 교회학교 교육과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하여 왔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기독교교육을 교회학교 교육으로 동일시하곤 하는데, 그것은 적절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기독교교육이 발생하는 현장으로서 지난 200년 동안 주일학교 혹은 교회학교가 중요한 자리였지만, 20세기에 들어와 기독교교육 현장은 가정, 사회, 일반학교, 교회 회중 전체, 그리고, 역사, 그리고 최근 컴퓨터와 인터넷이 결합된 가상 세계까지도 교육의 현장이 확장되었기 때문이다(손원영, 2002, 22-24). 그러므로 기독교교육은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혹은 성서와 전통, 그리고 기독교의 교리를 학습자에게 잘 전달하는 것은 물론 가정, 사회, 일반학교, 교회 회중 전체, 사이버 공간까지 아우르는 넓은 범위를 포함해야 한다.

기독교교육의 개념에는 학문적으로 세 가지 특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기독교교육은 인간의 사회적 행위를 탐구하는 측면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활동하심과 그에 대하여 성찰하는 신학 및 인문학적 성격도 갖고 있다. 이런 점에서 기독교교육의 개념에는 항상 사회과학적, 인문학적, 신학적 성격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기독교교육은 기독교교육의 이론이나 원리를 단순히 응용하고 전수하는 어떤 일방적 행위가 아니라 이론과 실천의 종합을 지향하는 ‘프락시스’(praxis)이다. 여기서 프락시스란 실천 속에 이론이 담지되어 있고, 또 이론 속에 실천이 포함되어 있는 일종의 비판적 성찰을 전제로 한 실천을 뜻한다(손원영, 2002, 26; Groom, 1980). 셋째, 기독교교육은 “기독교적 바른 앎(orthodoxy)과 기

독교적 바른 삶(orthopraxis)을 적절하게 연결하려는 의도적인 교육적 활동”을 의미한다(강희천, 1991). 여기서 ‘바른 삶’이란 성서와 기독교의 전통 및 교회의 신앙고백(교리) 등 기독교적 진리이며, ‘바른 삶’이란 기독교인의 구체적인 실천적(윤리적) 삶을 말한다(손원영, 2002, 25-29). 다시 말하여 기독교교육은 ‘바른 삶’과 ‘바른 삶’이 둘 사이에 관심을 갖고, 양자 사이의 상호비판적 연결을 주요 과업으로 하는 교육적 활동을 뜻한다.

한편, 한국교회의 기독교교육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독교교육’이라는 용어는 교회교육, 성경교육, 신앙교육, 영성교육 등과 함께 어울려 사용되고 있다. 첫째, 기독교교육(Christian Education)은 앞에서 언급한 바, 기독교교육의 다양한 현장에서 ‘바른 삶’과 ‘바른 삶’이 둘 사이에 관심을 갖고, 양자 사이의 상호비판적 연결을 주요 과업으로 하는 교육적 활동을 뜻한다. 교회교육은 물론 가정, 사회, 학교, 교회 회중 전체, 그리고 사이버 공간도 교육활동의 현장으로 포함한다. 둘째, 교회교육(Church Education)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교육활동으로 주일학교(유초등부, 소년부, 중고등부), 청년부, 대학부, 소그룹 활동, 노인대학 등을 포함한다. 셋째, 성경교육(Bible Education)은 기존의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성경공부(Bible Study)과 유사한 개념이다.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이루어진 성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설교, 강의, 세미나 등은 물론 다양한 교육 도구와 매체, 그리고 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넷째, 신앙교육(Faith Formation)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형성을 위한 교육활동을 의미한다. 신앙교육은 성서와 기독교 교훈과 가르침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실천되도록 돕는 의도적인 활동이다. 초점은 생명력 있는 신앙이 나타나도록 안내하려는 데 있다. 다섯째, 영성교육(Spiritual Education)은 생명을 주는 신앙교육과 궤를 같이하지만, 주로 일대일의 관계를 상징하는 ‘영적 지도’(Spiritual Direction)와는 달리 일대일 관계와 그 이상의 집단적이거나 공동체적인 차원을 고려한 전인적이고, 통전적인 신앙이 형성되도록 돕는 의도적인 신앙교육이다(김정준, 2008, 49). 본 연구에서 기독교교육은 신앙교육과 영성교육을 함께 포함한다. 성서와 기독교 교훈과 가르침이 기독교교육 현장에서 교수-학습 활동을 통하여 바른 삶이 바른 삶으로 연결되는 생명력 있는 신앙이 되도록 돕는 교육활동이다.

III.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와 기독교교육 위기의 원인

오늘날 한국교회와 기독교교육의 위기는 최근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이 가장 큰 원인이기는 하지만,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더 큰 흐름으로 1.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신앙과 교육활동의 정지, 2. 인구절벽 시대: 노인 증가 vs. 젊은이 감소, 3.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무

한경쟁, 효율성, 승자독식, 4. 탈종교 시대: 탈기독교, 공동체성 약화, 기독교 교인수 감소 등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려고 한다.

1.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 신앙과 교육활동의 정지

한국은 2023년 5월11일 코로나19 심각 경보를 해제하며 ‘코로나19 팬데믹’ 종식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 2023년 5월 5일 세계보건기구(WHO) 공중보건 비상사태 해제와 국가 감염병 위기 대응자문위원회 전문가 권고를 반영한 결과다.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 사회에 끼친 손실은 누적 사망자 35,000명, 막대한 경제적 손실, 사업장의 폐업과 해고,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 그 영향은 광범위하다. 2020년 1월 20일 이후 3년 4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었다(강원일보 2023.5.12.).

비록 코로나19 팬데믹은 공식적으로 종식된 것이지만, 약 3년 4개월이라는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한국 사회의 모든 종교 단체들은 물론 기독교회 역시 유·무형적으로 많은 손실과 타격을 받았다. 무엇보다도 정부는 코로나19의 강력한 감염 확산을 차단하기 위하여 ‘삼밀금지’(三密禁止) 정책을 취함으로써 교회는 운영을 중단하거나, 온라인으로 혹은 일정한 거리간격을 두고 제한된 인원만 모일 수 있도록 강제하였다. 그 결과 기독교회는 주일날 예배당을 중심으로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중단되거나, 온라인 방식으로, 혹은 제한된 적은 수의 인원만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교회와 신학교육에 끼친 영향은 2년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무엇보다 기존의 방식, 곧 한 공간에 교사와 학습자들이 모여서 단체로 가르치고 배우는 일체의 활동을 진행할 수 없게 되었다. 교회는 예배와 신앙교육, 소그룹 활동을 진행할 수 없었고, 때로 공간에 비례하여 적은 수가 모이거나, 온라인으로 간접적 커뮤니케이션을 할 수밖에 없었다. 모이기를 힘써야 하는 교회가 흩어지고, 거리를 두어야만 하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말았다. 신학대학의 교육활동도 마찬가지이다. 모든 것은 비대면으로 진행되어야 했다. 이러한 상황으로 교회는 정상적인 예배와 신앙교육을 하지 못하였으며, 정상적이지 못한 교회 운영은 교인수의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왔다. 신학교육 기관 또한 정상적이지 못한 교육활동으로 교육의 수준과 질이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2. 인구절벽 시대: 노인 증가 vs. 젊은이 감소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한국 사회에 끼친 영향뿐만 아니라 사회문화적 흐름 안에서 새롭게 등장한 젊은 인구의 감소 현상을 주목해야 한다. 어찌 보면 한국 사회의 젊은 인구의 감소 현상은 한국교회의 미래와 그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교육의 미래를 암울하게 한

다.

통계청의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은 1980년에는 2.36%에 불과했으나, 2010년에는 535만 명으로 전체 인구수 가운데 10.8%를 차지하였다. 그 후 10년이 지난 2020년에는 15.7%를 차지하여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하였다. 2030년에는 25.5%로 10년간 2배 이상으로 증가하여 노인 인구수가 20%를 넘어서는 ‘초고령화 사회’(Post-Aged Society)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표 1〉 참조).

〈표 1〉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65세 이상)의 비중 추계: 1980-2030.

전체인구(명)	37,436,315	42,869,000	47,008,000	49,554,000	51,829,023	51,392,745	49,840,000
노인인구(명)	886,530	2,195,000	3,395,000	5,354,000	8,108,000	9,492,582	12,971,000
분포율(%)	2.36	5.1	7.2	10.8	15.7	18.4	25.5
연도	1980*	1990	2000	2010	2020	2023	2030

참조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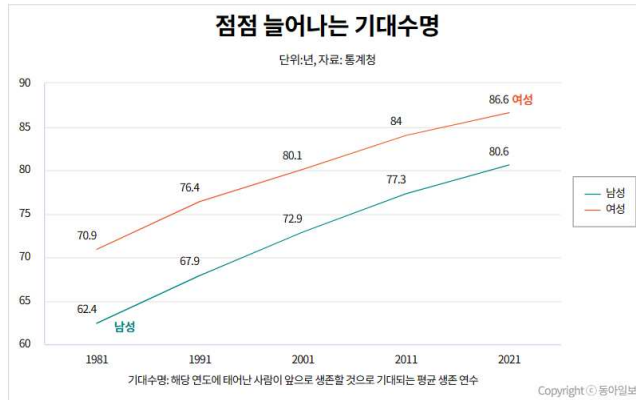
* 1980년: 60세 이상 인구수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1981년 한국인 남자와 여자의 평균 기대수명은 66.65세였다. 10년 후인 1991년에는 72.15세로 5.5세가 연장되었다. 다음 10년 뒤인 2001년에는 76.5세로 4.35년 연장되었다. 그 후 2011년에는 80.65세로 10.15년 연장되어 처음으로 10년 이상 기대수명이 연장되었다. 그 뒤를 이어 10년이 더 흐른 2021년에는 평균 83.6세로 이전 10년과 비교하여 7.1년이 연장된 것이다. 20세기 말부터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인들의 기대수명은 80~90세를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예상되며, 실제로 우리들의 생활 주변 장례식장에서 그런 상황을 발견할 수 있다. 심지어 미국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의 싱클레어(David A. Sinclair) 교수에 의하면, 인류사회의 미래 인간 기대수명은 150세가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Sinclair & LaPlante, 2020, 369).〈표 2〉, [그림1] 참조)

〈표 2〉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기대수명 추이: 1981-2021

기대수명/여성 (세)	70.9	76.4	80.1	84.0	86.6	150(?)
기대수명/남성 (세)	62.4	67.9	72.9	77.3	80.6	150(?)
기대수명 평균	66.65	72.15	76.5	80.65	83.6	150(?)
연도	1981	1991	2001	2011	2021	금세기말

참조 : 통계청; 동아일보 2023.3.24.; "기대수명." 위키피디아; Sinclair & LaPlante. 2020, 369.



[그림 1] 점점 늘어나는 기대수명: 1991-2021(통계청; 동아일보 2023.3.24.)

반면, 198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젊은 인구수는 노인 인구수 증가와는 반대로 점점 그 수가 감소하고 있다. 통계청의 자료에 나타난 젊은 인구수의 동향을 출생아 수(합계출산율)와 만 18세 이상 학령인구 추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우리나라의 출생아 수(합계출산율)를 1980년 이후부터 2020년까지 합계출산율을 살펴보자. 통계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한 해에 태어나는 출생아 수를 ‘합계출산율’로 표현한다.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 명이 가임 기간에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를 말한다. 그것은 출산이 가능한 연령대인 15세부터 49세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2018년 0.98명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이후 2022년에 이르러 사상 최저치인 0.78명으로 세계 최저 출산율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이는 OECD 주요 국가들의 평균 1.59명에도 훨씬 못 미치는 심각한 상황으로 장차 대한민국이 소멸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하기도 한다([그림 2], [그림 3]; <표 3> 참조).



[그림 2] 우리나라 합계출산율 추이(통계청; 연합뉴스, 2023.2.22.)



[그림 3] OECD 주요국가 2020년 합계출산율 (통계청; 연합뉴스, 2023.2.22.)

<표 3> 우리나라 출생아 수(합계출산율): 1990-2022(통계청, 연합뉴스, 2023.2.22. 참조)

전년 대비 증감	64만	-0.18	-0.11	-0.02	-0.03	-0.07	-0.12	32만	-0.07	-0.06	-0.08	-0.03	25만	-0.03
합계출산율(%)	1.48	1.30	1.19	1.21	1.24	1.17	1.05	.98	.92	.84	.81	.78		
연도	2000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단위: 명)

이와 같은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 출생아 수의 급격한 감소는 자연스럽게 초중등학교와 대학교의 학령인구 감소라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아울러 한국교회의 미래를 이끌고 나아가야 할 청소년들과 어린이들의 인구 감소는 학령인구에 해당되는 주일교회학교의 아동 및 유치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 그리고 대학부 및 청년부의 학습자가 축소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 결국 한국교회의 주일교회학교의 학습자 감소는 교회교육의 운영 및 활동을 위축시키고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 교회교육 운영 및 활동의 위축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장차 교회를 이끌어갈 미래 지도자 자원의 감소를 뜻한다. 아울러 신학대학과 신학대학원의 지원자 감소는 결국 신학교육의 중단은 물론 교육기관의 운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된다. 교회와 신학대학은 상호 분리된 조직이 아니라는 상호 협력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3.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무한경쟁, 효율성, 승자독식

신자유주의는 1929년 미국의 경제 대공황 이후 20세기 중반까지 세계의 경제체제를 품어왔던 케인스주의가 1970년대 오일쇼크와 영국병, 스태그플레이션, 1990년대 공산주의 국

가들의 몰락 등을 겪으면서 한계가 나타나자, 그 대안으로 1980년대 미국의 로널드 레이건과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정부가 들어서면서 급부상하여, 오늘날 우리 시대를 이끌어 가는 경제사상이다.

20세기 후반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을 영국의 대처리즘과 미국의 레이저노믹스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1970년대 저성장, 인플레이션, 높은 실업률 등을 타개하고자 1979년 집권 보수당의 대처(Margaret H. Thatcher, 1925-2013) 수상은 정부의 기능 축소, 민영화, 노동조합의 연성화와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취하였다. 이것이 이른바 대처리즘(Thatcherism)이다. 미국의 경우 레이건(Ronald W. Regan, 1911-2004) 대통령 역시 영국과 유사하게 조세감면, 규제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등과 같은 신자유주의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것이 바로 레이저노믹스(Reganomics)다(박승인, 2019, 67-71).

신자유주의는 20세기 후반 이후 펼쳐진 세계화와 기술 자본주의와 결합되면서 개인의 능력과 효율성, 성과, 그리고 혁신 등을 통하여 세상을 빠르게 발전, 변화시켰다는 밝은 면이 있다. 반면에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수월성, 혁신, 무한경쟁, 승자독식 등과 같은 가치들로 인한 새로운 경제체제에서 차별과 배제, 혐오 등 인간을 소외시키는 어두운 면도 지적되고 있다. 20세기 말에 이르러 전 세계는 소수의 발전 국가와 다수의 저성장 국가로 대비되면서, 양자 간 경제 발전 및 성과의 분배·격차가 더욱 심화하고 보편화 되어가는 형국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이에크(Friedrich A. von Hayek, 1899-1992)와 프리드만(Milton Friedman, 1912-2006) 등 시카고학파를 중심으로 신자유주의가 등장하였다(권수현, 2010, 19).

신자유주의는 자유시장, 규제 완화, 재산권을 중시한다. 국가권력은 시장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시장경쟁을 유도하고 경제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을 중시한다. 신자유주의의 궁극적 목표는 국가의 주권적 규제에서 벗어난 시장체제가 모든 경제 활동을 통제하며, 경제 활동에 영향을 끼치거나 규제하는 국가권력은 제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 간의 자유경쟁이 세계 시장 차원에서 전개될 수 있도록 자본과 시장의 역할을 확대시켰으며, 반면에 정부 권력에 의한 통제 역할은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강용원, 2011, 23-24).

1) 신자유주의의 특징

20세기 후반 세계화와 결합된 신자유주의는 몇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강용원, 2011, 24-25; 유호근, 2009, 128). 첫째, 신자유주의는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특징이 있다.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 개인의 가치와 존엄을 가장 중요하게 여김으로 개인의 사적 소유, 개인의 인권 존중을 중시한다. 여기서 개인은 효용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합리적 선택 행위의 주체이고 이윤 추구자로 간주 된다. 그러므로 신자유주의에는 사회나 공동체보다 오직 경제적 경쟁력이 있는 개인과 기업만 중요하다. 이러한 가치는 결국 공동체의 전체적인 이익을

고려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둘째, 시장을 통한 자원배분 원리에 의한 경제주의와 효율성을 강조한다. 신자유주의는 시장원리를 중시하는 ‘시장만능주의’이다. 사회 각 부분의 비효율은 시장원리에 따라 운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시장원리를 적용하면 비효율은 해소되며, 심지어 정부의 실패도 시장원리를 제대로 적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국가의 효율적 운영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공공부문 업무도 민간경제체제로 이행하여 시장원리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즉, 국가 전체 체제의 시장원리의 적용은 국가개혁의 일반적 지향점이 된다. 이렇게 보면 정부도 하나의 ‘기업’이다. 셋째, 국가의 통제력 약화이다. 신자유주의는 국가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시장의 자율적 배분 원리를 중시한다. 시장의 보이지 않는 손과 자유경쟁의 원리에 의해 최적의 자원배분이 이루어진다고 본다. 하이에크(F. A. Hayek)는 시장에서 자유로운 경쟁의 허용과 정부의 불간섭이 사회조직의 기본적인 원리라고 평가한다. 예컨대, 국가 경제의 전통적인 조절 수단인 금리와 환율은 국가보다는 국경을 넘나드는 초국적 자본의 운동에 의해 결정된다. 그러므로 국가는 자본 유치를 위해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과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둘 수밖에 없다.

2)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과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가져왔다(강용원, 2011, 25-27). 첫째, 경쟁의 심화이다. 세계화는 한마디로 경쟁주의이다. 보다 크고, 보다 강하며, 보다 좋은 것을 추구하고 받아들인다. 그래서 어디서나 목표는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화가 표방하는 무한경쟁은 세계가 단일시장이 되면서 종전에 개별 국가의 보호 아래 이루어지던 경쟁이 이제는 보호 장벽이 사라진 채 무한경쟁의 장에 서게 된 것이다. 둘째, 빈부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적 불평등이다. 신자유주의에 입각한 세계화는 전 세계의 부를 증진 시키는데 기여했으며,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제일의 목표로 추구한다. 따라서 정의나 형평성 등을 소홀히 여기므로 결국 자본을 가진 자만 경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함으로써 ‘부익부 빈익빈’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강용원, 2011, 26; 김재곤, 2003, 21-22). 결국 세계화는 삶의 질을 풍성하게 해주기는커녕 가난을 선물로 주어 인간의 존엄성은 파괴되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분리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강용원, 2011, 26; 장윤재, 2008, 242). 셋째, 자원 고갈 및 환경 파괴와 오염의 문제이다. 신자유주의 사상은 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충분한 소비가 일어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생각은 자원의 무분별한 착취와 소비를 불러일으킴으로 자원의 고갈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강용원, 2011, 26; 장윤재, 2008, 242). 환경오염의 문제는 이미 사람들의 조절 수위를 넘어섰다. 세계화를 통한 초국적 기업들의 활동은 개별 국가의 환경 정책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초국적 기업들은 환경보호에 대한 인식과 기준이 낮은 개발도상국을 선택하여 기업활동을 하며, 개발도상국들은 초국적 기업

을 유치하여, 그 수익을 얻기 위하여 환경보호의 기준과 정책을 완화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강용원, 2011, 27; 황준성, 2002, 185). 환경오염과 자연환경 파괴는 국제적인 사회문제이며, 윤리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넷째, 지역문화 정체성의 파괴이다. 어떤 영역에서든지 세계화는 기능적으로 모든 것을 ‘하나’로 만들어 버린다. 삶 전체를 획일화로 선을 긋고 동일한 것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좋게 보고, 비슷한 것은 상대적으로 보며, 다른 것에 대해서는 모두 나쁘게 보는 구조라 하겠다(강용원, 2011, 27; 오인택, 2002, 12-21). 획일적 세계화는 각 지역의 고유한 문화전통을 파괴하는 또 하나의 문화 식민지를 만든다. 자본의 힘과 결속된 문화가 파급되면서 고유의 문화전통들은 소멸되는 것이다(강용원, 2011, 27; 임희국, 2002, 10). 오늘날 대중문화는 신자유주의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 자본주의와 결합되어 글로벌 마켓의 새로운 자본주의 문화 트렌드를 형성해 나가고 있다.

3) 신자유주의와 기독교교육

신자유주의 교육은 1980년대 미국과 영국에서 도입되기 시작된 이후 1990년 전후로 급격히 전 세계에 확산되면서 지금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무엇보다 기업의 시장경쟁 원리를 도입하여 교육의 성과를 얻는 데 목적이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교육소비자와 공급자에게 선택(choice), 자유(liberty), 책무성(accountability)이라는 이념적 축을 중심으로 무한경쟁을 강조하면서 공교육의 시장화를 추구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교육은 계약학교(charter school), 학교선택제(school choice), 바우처(voucher), 웨이버(waivers) 등으로 구체화되지만, 이들 모두 공교육의 시장화와 무한경쟁을 상징하고 있다(강창동, 2011, 12).

신자유주의 교육은 교육시장의 수월성 위주의 비인간화 경쟁을 통해 교육상품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 그러므로 이전에 인간과 사회의 보편적 가치를 중시하는 고전적 자유주의 교육과는 달리 신자유주의 교육은 시장의 이윤과 효율성에 적합한 인간을 형성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는 데 큰 문제가 있다.

신자유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면서,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예술, 그리고 심지어 종교 영역에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강용원(2011, 32-51)은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기독교교육에 끼친 영향을 단절로 파악하였다.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단절, 이웃과 단절, 자연과 단절, 자기와의 단절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면서, 단절된 관계 회복을 위한 통전성의 기독교교육을 제시하였다. 그는 통전성을 회복하기 위한 기독교교육은 하나님의 의에 기초하여 살림을 회복하는 기독교교육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4. 탈종교시대: 탈기독교, 공동체성 약화, 기독교 교인수 감소

20세기 중반에 불기 시작한 시대적 사상인 포스트모더니즘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기술 과학의 발달에 따른 사회문화 및 경제적 수준의 향상과 맞물려 한국 사회의 탈종교 현상을 심화시켰다. 18세기 근대 계몽철학은 인간의 이성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기독교의 절대 하나님, 계시 진리로서 성서의 권위, 교회의 권위와 전통, 그리고 신앙의 가르침이나 고유한 가치를 부인하거나 희석 시키고자 하였다. 대표적인 사례가 인간의 이성으로서 하나님과 계시의 영역을 판단하고 해석하는 이신론(Deism)과 같은 것이다. 19세기에는 유물론적 공산주의자 마르크스(K. Marx, 1818-1883)가 등장하여 유물론에 기초하여 “종교(기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고 주장하였다(Marx, 1844, 1; 1976, 378-391). 기독교는 자본가들의 억압과 착취로 인해 피폐해진 민중들의 삶을 왜곡하여, 천국을 꿈꾸며 살아가도록 하는 현실도피 기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김정준, 2017, 171-172). 20세기 이후 인간의 이성과 물질 자본에 토대를 둔 기술과 과학의 발전은 인간의 삶과 일상생활을 이전과 다르게 획기적인 수준으로 변화시켰다. 특히, 21세기에 이르러 제4차 산업혁명은 문명의 총아 컴퓨터와 연결된 물리학, 생물학, 디지털 등 다양한 분야와 연결된 융복합적 기술과학의 발달로 인간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역사의 무한한 진보와 발전으로 테크노피아를 꿈꾸게 한다.

이러한 흐름 가운데 21세기에는 영국 옥스퍼드대학교의 생물학자이자 무신론자인 도킨스(Richard Dawkins)가 그의 저서 『만들어진 신』(The God Delusion, 2006)에서 종교는 무익할 뿐만 아니라 아주 유해한 망상으로 하루 속히 폐기되어야 할 구시대의 유물이라고 주장하였다. 이 책의 제목처럼 종교는 다수의 사람들을 망상에 시달리게 한다는 것이다(김기석, 2009, 5-6; 김정준 2017, 172; Dawkins, 2006). 이처럼 18세기 근대 계몽주의시대 이후 오늘날까지 지속적으로 기독교의 하나님, 성서의 계시 진리, 교회의 권위, 신앙의 전통은 인간의 이성과 합리성, 철학과 사상, 이데올로기, 권력과 자본, 과학기술 등의 도전을 받아왔다. 21세기에 이르러 과학기술과 자본이 결합 되어 도래할 미래 인류사회는 심지어 신과 같은 차원의 인간(homo Deus)을 꿈꾸고 있다(Harari, 2017,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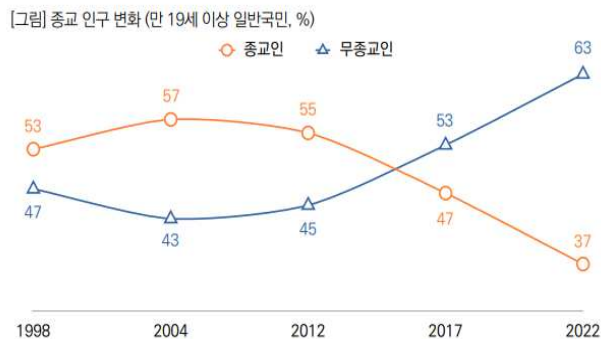
하지만 21세기 현대문명과 인간의 과학기술의 오만과 폐해에 따른 비인간화를 극복하기 위하여 대중들은 ‘영성’(spirituality)에 대한 관심이 역설적으로 증대되고 있다. 그것은 대중들의 전통적인 기독교의 권위와 가르침에 대한 회의와 불신을 반영하며, 새로운 종교(동양종교와 지혜, 신비주의, 뉴에이지 등)에 대한 증대된 관심을 의미한다(김정준, 2017, 173; Downey, 2001, 33-38). 오늘날 영성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은 고도로 다원화 된 탈현대사회에서 집단보다는 개인을 중시하는 시대적 트렌드를 반영한다. 개인이 중시되는 탈현대사회에서는 종교성도 바뀌게 된다. 그 특성은 영성은 추구하지만, 더 이상 제도종교에 소속되거나 강요당하는 것은 원하지 않는 이른바 SBNR, 즉 ‘영적이지만 종교적이지 않은’(spiritual but not religious) 특성 혹은 ‘믿기는 하지만 소속되기는 원하지 않는’(believing but not

belonging) 특성을 나타낸다(정재영, 2012, 148-149).

실제로 2004년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를 보면 기독교(개신교)를 믿다가 교회를 떠난 사람은 무려 758만 명에 이르는 데 반해, 불교를 떠난 사람은 388만 명이고, 천주교를 떠난 사람은 182만 명인 것으로 발표되었다(정재영, 2012, 149). 21세기 초반 한국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삼대 종교 가운데 기독교에 대한 대중들의 신뢰도와 호감도가 가장 낮은 것을 미루어 짐작하여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독교에 대한 대중들의 낮은 신뢰도와 호감도는 2004년 이후 9년이 지난 2023년에도 지속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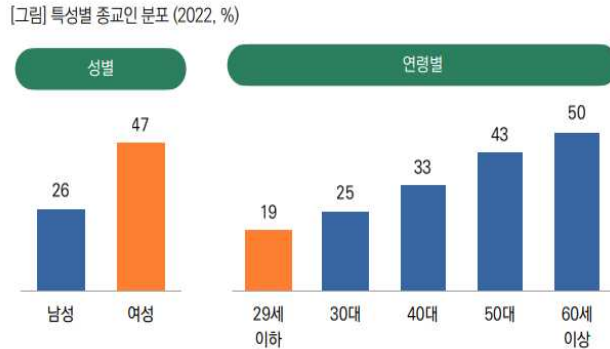
2023년 ‘한국교회 미래 준비하는 모임’(한미준)에서는 ㈜지앤컴리서치를 통하여 먼저, 종교 인구 파악을 위한 조사를 2022년 2월~11월까지 유효표본 9,182명을 대상으로 대면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표본 추출방법은 지역/성/연령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Random Sampling) 방식으로 표본오차는 $\pm 1.02\%$, 95% 신뢰구간이다).

첫째, 한국사회의 탈종교화 현상으로 종교 인구수의 감소 현상이다. 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 한국사회의 종교인구는 37%, 무종교인은 63%로 종교인구가 처음으로 30%대로 하락하였다. 한미준의 조사 시작 시점인 1998년 이래로 종교인 비율이 무종교인보다 앞서다가 2017년 무종교인 비율이 종교인을 앞질렀고, 그 이후 무종교인이 증가하며 종교인구 격차가 벌어지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2012년 이후 탈종교화가 매우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4]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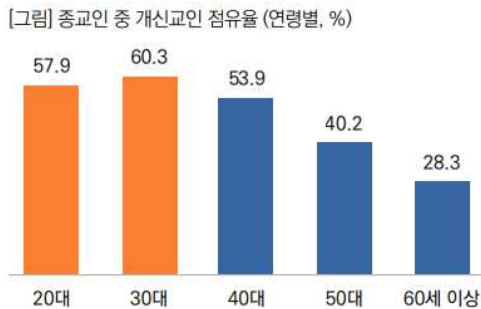
[그림 4] 한국사회의 종교인구 대 무종교인수 비교: 1998-2022년(넘버즈, 206, 4)

둘째, 성별, 연령별 종교인구수의 분포상황이다. 한국사회의 탈종교화 현상 속에서 남성 종교인구수(26%)보다 여성 종교인구수(47%)가 많았고, 60세 이상 종교인구수는 50%, 29세 이하의 19%를 차지하였다. 20대의 경우 종교인구수는 5명 중에 1명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되었다([그림 5] 참조).



[그림 5] 성별/연령별 종교인분포: 2022년(넘버즈, 206, 4)

셋째, 2030년 MZ세대의 종교 인구수 중에 개신교의 점유율이다. 한국사회의 종교 인구수를 기준으로 개신교 점유율을 연령 별로 살펴보면, 20대 57.9%, 30대 60.3%로 2030 MZ세대의 경우 개신교가 전체 종교 중 거의 6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다음 세대로 가게 될 경우 한국 종교 중 개신교가 지배적인 종교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종교인구가 줄고 개신교 인구 또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래 사회의 부패를 막고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현재의 교회학교 학생 한 사람, 청년 한 사람을 기독교 사상과 가치관으로 무장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를 알 수 있다([그림 6] 참조).



[그림 6] 한국사회 종교인구수 중 개신교인 점유율(넘버즈, 206, 6)

넷째, 향후 한국사회의 기독교 인구수의 비율을 전망해 보았다. 우리나라 개신교인 비율은 향후 어떻게 변화할까? 전체 우리나라 인구 중 개신교인 비율은 2012년 22.5%에서 2022년 15.0%로 줄었고, 이 추세를 반영하여 10년간 단순 하락 기울기를 반영, 향후 10년 뒤를 예상하면 최악의 경우 10.2%까지 감소할 수 있다. 이 속도로 하락한다면 향후 1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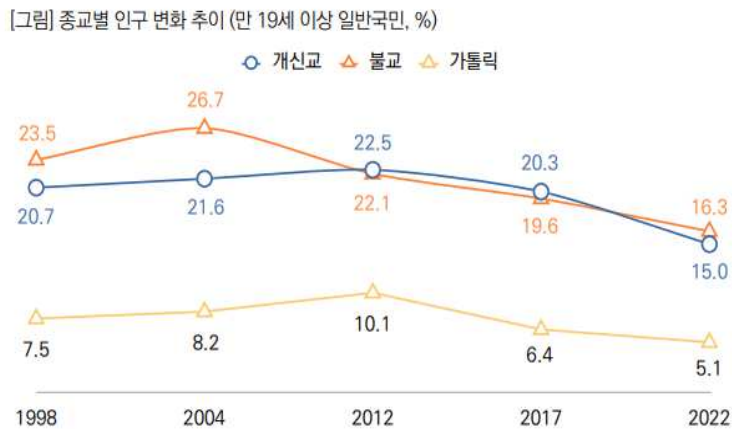
뒤에는 개신교인이 우리 국민 10명 중 1명에 불과하다는 추론이다([그림 7]; <표 4> 참조).



[그림 7] 개신교인 인구 비율 추이: 2012-2032년(넘버즈, 206, 6)

<표 4> 개신교인 인구 비율 추이: 2012-2032년(넘버즈, 206, 6)

2012년 이후 한국사회의 탈종교화 현상 속에서 기독교의 종교인구수의 감소는 천주교와 불교와 비교해도 같은 흐름을 반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30대 기독교 종교인구 비율은 10% 초반대로 평균보다 낮지만, 타종교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특징을 보여주는 것은 긍정적인 면이라 하겠다([그림 8]; <표 5> 참조).



[그림 8] 만 19세 이상 종교별 인구변화 추이: 1998-2022년(넘버즈, 206, 5)

[표] 특성별 종교 인구 분포 (202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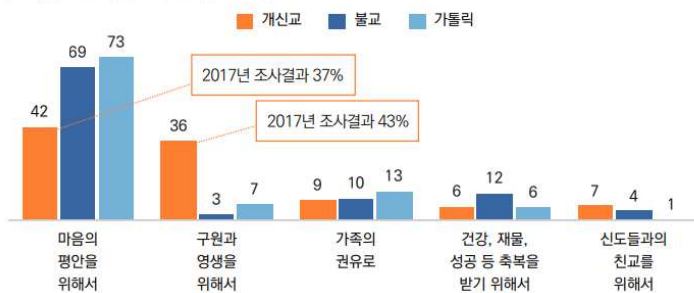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29세 이하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개신교	15.0	10.9	19.0	11.0	14.6	17.8	17.0	14.2
불교	16.3	11.6	20.9	3.5	4.7	10.4	20.1	30.2
가톨릭	5.1	3.5	6.7	4.5	4.9	4.8	5.2	5.7
기타	0.2	0.2	0.2	0.0	0.2	0.1	0.2	0.3
무종교	63.4	73.8	53.1	80.9	75.5	66.8	57.5	49.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 특성별 종교 인구 분포: 2022년 (넘버즈, 206, 5)

다음으로, 전국 만 19세 이상 개신교인(유효표본 2,000명, 무작위 추출 가정 ±2.2%, 95% 신뢰구간) 및 비개신교인(유효표본 1,000명, 무작위 추출 가정 ±3.1%, 95% 신뢰구간)을 대상으로 ‘2023 한국인의 종교생활과 신앙의식 조사’를 2023년 1월 9일~16일(8일간) 조사하였다.

첫째, 종교인들의 신앙생활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개신교, 불교, 가톨릭 등 3대 종교 모두 ‘마음의 평안을 위해서’가 가장 높게 응답하였다. 그러나 종교별로 살펴보면 ‘개신교’(36%)의 경우 타 종교(가톨릭 7%, 불교 3%) 대비 ‘구원과 영생’을 꼽은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개신교인의 경우에도 역시 신앙생활 이유로 ‘구원과 영생’ 요인보다는 ‘마음의 평안’이라는 개인적 필요 요인이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년도 1, 2순위가 뒤바뀐 결과이다. 1998년 조사 이래로 매년 개신교인 신앙생활의 이유 1순위였던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가 처음으로 2순위로 내려간 것이어서 주목된다(그림 9 참조). 개신교 신자들의 경우에도 21세기 탈종교화의 시대적 상황과 맞물려 ‘구원과 영생’이라는 기독교의 핵심적 가치보다 개인의 마음에 평안을 구하는 종교적 태도로 변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그림] 종교별 신앙생활의 이유 (종교인, %)



[그림 9] 종교별 신앙생활의 이유(넘버즈, 206, 8)

둘째, 종교가 없는 무종교인들에게 종교를 믿지 않는 이유를 물은 결과, ‘종교에 관심 없어서’가 2017년 조사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응답률은 이전(2017년) 조사 대비 7%p 상승했다. 2위로 응답한 ‘종교에 대한 불신과 실망’ 역시 6%p 증가하여, 무종교인의 종교에 대한 무관심 증가와 더불어 종교에 대한 실망이 더욱 무종교인을 양산하는 요인으로 작용함을 알 수 있다(그림10 참조).



[그림 10] 무종교인의 비신앙 이유: 201년, 2023년 비교(넘버즈, 206, 8)

20세기 중후반부터 본격화 된 포스트모던적 보편담론의 해체와 개인주의 경향,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시장경쟁과 승자독식 사회, 한국교회의 성장 정체 및 쇠퇴 경향 등에 따른 탈종교화 현상은 2020년 확산된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열패감과 신자들의 침체된 영적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다. 2023 한미준 조사 내용에 따르면, 한국사회의 탈종교화는 더 가속화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국 개신교인 비율이 우리나라 총인구 대비 15%까지 줄어들었음이 확인되었고, 이 속도라면 최악의 경우 향후 10년 뒤 개신교인은 총인구의 10%까지 추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보고하였다(넘버즈, 206, 2023.9.5.).

IV.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기독교교육의 위기 현상

본 장에서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기독교교육의 위기 현상을 네 가지 주제에 맞추어, 1. 교회교육의 위기: 주일학교의 운영 중단과 열패감, 2. 청년세대의 신앙 위기: 불안한 미래 교회지도자 양성, 3. 성인세대의 신앙: 위기와 희망, 4. 노인세대의 신앙: 빛과 그림자 등의 순서로 논의하고자 한다.

1. 교회교육의 위기: 주일학교의 운영 중단과 열패감

2020년 초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은 한국과 일본, 아시아 지역을 넘어 전세계로 확산되어 코로나19 팬데믹 재난상황이 되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가운데 2021년 4월 현재 한국교회 주일학교 교육활동은 거의 붕괴 직전으로 보고되었다. 그동안 한국교회 60% 이상을 차지하는 교인수 200명 이하 소규모 교회들은 교사 및 학생수의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중에 코로나19 감염병의 확산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다.

2021년 4월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에 소속된 2개 지방의 주일학교 운영실태는 아주 미약했다. 서울시 관악구에 위치한 A지방 소속 23개 교회들 가운데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교회는 200명 이상 자립교회 5교회 정도만 운영하고 있었다. 금천구에 위치한 B지방의 경우에도 소속된 20개 교회들 가운데 교인수 200명 이상 되는 자립교회 5교회 정도만 운영하고 있었다. A, B지방 사례에서처럼, 소속된 20여개 교회들 가운데 주일학교를 운영하는 교회는 대략 5개 교회로 40% 정도 운영률을 보여주는데, 실제 운영되고 있는 주일학교 학생수(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중고등부 포함)는 대략 30여명 정도 수준이었다(김정준, 2021, 22-23).

2020년 1월부터 2023년 5월 11일까지 약 3년 4개월 동안 한국교회에 큰 타격을 주었던 코로나19 팬데믹의 부정적 영향은 무엇보다 한국교회의 교육지도자들에게 기독교교육(주일학교) 교육을 실행할 수 없다는 좌절과 우울감을 느끼게 되었다는데 있다. 사실 한국교회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교회성장의 퇴조 분위기와 맞물려 주일학교 교육도 어려움을 겪던 터였다. 김만형(2005)은 21세기 초 시대적 환경에서 한국교회 주일학교가 운영에 큰 어려움을 겪는 이유를 다섯 가지로 분석하였다(김만형, 2005, 46): ① 시간부족: 일주일에 하루 그것도 80분이 넘지 않는 학습시간. ② 공간부족: 주일학교 교육을 위한 전용공간이 확보되지 않은 열악한 학습환경. ③ 교육철학 부재: 주일학교에 대한 교육철학 없이 대충가는 교육풍토. ④ 교육투자 전무: 언제나 예산이 부족한 주일학교는 세속교육과 비교 불가한 교육의 수준 저하. ⑤ 전문인 부재: 주일학교 담당자(사역자)들은 장년부를 맡기 위한 준비 단계로 여긴다. 이러한 여건 속에 2020년 초부터 3년 4개월 동안 주일학교에 불어닥친 코로나19 팬데믹은 교회교육 지도자들에게 큰 심리적 좌절감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열패감을 안겨준 것이 큰 상처가 되었다.

2. 청년세대의 신앙 위기: 불안한 미래 교회지도자 양성

한국사회의 인구절벽 현상 가운데 큰 문제는 노인 인구는 점점 증가하는 데 그와 반대로 출산율 감소와 함께 젊은 인구는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젊은 인구수의 감소

는 자연스레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기존 대학의 입학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입학생 미달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학 입시를 치르는 만 18세 인구는 2021년 기준 지난해 2020년 51.2천명에서 올해 2021년에는 47만6천명, 2022년에는 47만3천명으로 줄어들고, 향후 2035년에는 37만명, 2040년에는 28만명으로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현상은 벌써 입시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신학대학들은 더 큰 위기로 다가오고 있다(〈표 12〉 참조).



[그림 11] 만18세 학령인구추계 (CBS노컷뉴스, 2021.4.7.)

〈표 6〉 우리나라 만 18세 학령인구 추계: 2019-2040년(CBS노컷뉴스, 2021.4.7.참조)

증감(명)	0	-8만2천	-11만8천	-12만1천	-15만5천	-16만4천	-22만4천	-31만4천
만18세 학령인구	59만4천	51만2천	47만6천	47만3천	43만9천	43만	37만	28만
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35	2040

이러한 흐름 속에서 기독교회의 미래 지도자를 배출하는 주요 신학대학들의 입학생 미달 현상은 구체적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입시 경쟁률의 하락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최근 5년간 전국대학 정시경쟁률을 보면 2017년 5.1대 1에서 2020년 4.6대 1, 2021년 올해 입시에선 3.6대 1의 경쟁률을 나타내 전반적인 하락 현상을 보여준다.

좀더 구체적으로, 미래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를 배출하는 신학대학들도 입시 경쟁률이 급격히 하락하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우리나라 개신교회의 주요 신학대학들의 올해 입시 경쟁률을 보면 장신대, 총신대, 서울신대 등 일부 대학을 제외한 대다수 대학들은 신학과 모집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고신대는 0.67대1, 감신대 0.39대 1, 침신대 0.21

대 1, 협성대 0.56대 1, 목원대 0.86대 1, 아세아연합신대 0.23대 1 등이었다. 모집정원을 채운 대학들도 대체로 모집인원을 간신히 넘긴 낮은 경쟁률이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현상이 출산률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해 신학대학 입시의 낮은 경쟁률은 더욱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신학대학의 입시 경쟁률 하락 현상은 출산률 감소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 하겠다. 그러나 시대적 상황에서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하락에 따른 교회의 부정적인 이미지는 젊은이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탈하게 만들었다. 그런 연장선에서 젊은이들의 교회에 대한 헌신과 복음 사역에 대한 열망이 점차 사라지고, 목회와 신학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는 현실을 반영한다(CBS노컷뉴스, 2021.4.7.)

무엇보다 한국사회의 인구 절벽시대에 노인인구 증가와 젊은 인구의 감소는 학령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신학대학 지원자 감소로 이어져 한국교회의 신학교육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아울러 한국교회의 사회적 신뢰도 하락은 젊은이들로 하여금 교회에 대한 충성과 헌신을 가로막아 자연스럽게 한국교회의 미래 목회자와 기독교교육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3. 성인세대의 신앙: 위기와 희망

21세기에 들어서면서 한국사회는 포스트모더니즘의 확산, 기술과학의 발달, 산업경제 수준의 향상, 의료·사회복지 제도의 확대에 따른 한국인들의 삶의 수준은 눈부신 도약을 가져왔다. 이미 서구사회에서 경험한 것처럼 기독교의 쇠퇴는 세속화의 물결이 교회와 신앙인들의 경건한 삶을 압도할 때 나타난다. 여기에 더하여 다음과 같은 사회적 경향은 교회의 성장을 가로막으며,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약화시킨다(이원규, 2010, 122-123): 첫째, 합리화(rationalization)의 영향이다. 즉 전통적 가치보다 효율성과 능률을 강조하는 합리화는 종교의 영향을 감소시킨다. 둘째, 과학의 발달, 산업화와 도시화,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종교적 믿음은 약화되고, 종교 참여는 낮아진다. 셋째, 개인주의가 확산되면 종교전통은 쇠퇴하고 종교성이 약화된다. 넷째, 종교 제도와 권위에 대한 신뢰 하락이 교회의 쇠퇴를 가져온다. 이러한 흐름에서 한국교회는 20세기 후반 이후에 교회의 쇠퇴를 경험하며 크게 염려하던 중이었다. 그런 가운데 2022년 초에 시작된 코로나19 감염병의 세계적 확산은 2023년 5월까지 3년 4개월 동안 한국교회의 예배와 주일학교 신앙교육, 소그룹 활동 등 모든 것을 중단시켜 빈사(瀕死) 상태에 이르게 하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 한국교회의 신속한 예배의 회복과 다양한 교육 활동의 재개는 소망스런 모습이 아닐 수 없다. 특히 한국교회 중년기 성인 신자들의 주일예배와 소그룹 활동의 적극적인 참여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다.

연구자는 2023년 5월 11일 코로나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종식된지 4개월이 지난 2023년 10월 현재 기독교대한감리회 서울남연회에 소속된 2개 지방회 교회들의 주일예배(오전, 오후)와 소그룹 활동(속회)의 참여 상태를 유선전화로 인터뷰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도표7 참조).

첫째, 관악구에 위치한 A지방에 소속된 20개 교회들 가운데 편의상 대형교회(200명 이상), 중형교회(200-50명), 소형교회(50명 이하)로 구분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일 오전예배, 오후예배, 소그룹 모임(속회) 참여율을 조사하였다. 대형교회는 주일 오전예배 90%, 오후예배 85%, 소그룹모임 98%가 참여하였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주일예배는 많이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형교회는 주일 오전예배 90%, 오후예배 85%, 소그룹모임 98%가 참여하였다. 소형교회도 주일 오전예배 98%, 오후예배 98%, 소그룹모임에는 97% 참여하였다. 중형과 소형교회의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신자들이 주일 오전과 오후예배, 그리고 소그룹모임 참여율이 97% 이상의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에 주일예배 및 소그룹 모임은 빠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표 7〉 관악구 A지방과 금천구 B지방 교회의 주일예배와 소그룹 참여도: 2023년 10월 현재

교회규모	서울 관악구 A지방			서울 금천구 B지방		
	대형 200명 이상	중형 200-50명	소형 50명 이하	대형 200명 이상	중형 200-50명	소형 50명 이하
주일 오전예배	90	92	98	92	90	98
주일 오후예배	85	90	98	82	70	95
소그룹(속회)	98	97	97	97	95	95

(단위: %)

둘째, 금천구에 위치한 B지방에 소속된 23개 교회들 가운데 편의상 대형교회(200명 이상), 중형교회(200-50명), 소형교회(50명 이하)로 구분하여,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일 오전예배, 오후예배, 소그룹 모임(속회) 참여율을 조사하였다. 대형교회는 주일 오전예배 92%, 오후예배 82%, 소그룹모임 97%가 참여하였다.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하여 주일예배는 많이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다. 중형교회는 주일 오전예배 90%, 오후예배 70%, 소그룹모임 95%가 참여하였다. 소형교회도 주일 오전예배 98%, 오후예배 95%, 소그룹모임에는 95% 참여하여 상당히 높은 참여율을 보여주었다. 중형과 소형교회의 경우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신자들이 주일 오전과 오후예배, 그리고 소그룹모임 참여율이 95% 이상의 높은 참여율을 나타냈다. 결과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에 대형, 중형, 소형의 모든 교회들이 빠

른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현재 교회 운영의 중심이 되는 성인들의 주일 오전예배와 오후예배, 그리고 소그룹 모임의 높은 참여율은 쇠퇴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상황에서 희망의 불씨가 되고 있다.

4. 노인세대의 신앙: 빛과 그림자

21세기 한국사회의 노인인구의 증가는 자연스럽게 한국교회 노인 신자수 증가와 유사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2016년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육국에서 실시한 노인목회 실태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표집대상 전국 186교회, 전체 교인수 57,934명 가운데, 65세 이상 노인 신자수는 15,126명으로 노인 신자수 구성비는 26.10%에 해당되었다(도표8 참조). 한국 감리교회는 교인수 100명 중에 65세 이상 노인 신자가 약 27명 정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노인 신자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는 교육프로그램은 주로 100명 이상 교인수 규모의 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다. 100명 이하의 교인수의 소규모 교회에서는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파악되었다(김정준, 2018, 58-62). 한국교회는 노인 신자들을 위한 신앙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은 신앙교육 정책을 기획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교육 전문가와 자원봉사자 부족, 그리고 빈곤한 재정이 문제가 되고 있다. 향후 한국사회에서 노인 인구수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측되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의 신앙을 성장시키며, 성숙하도록 돕는 교육 전문가들과 다양한 신앙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하겠다.

〈표 8〉 2016년 한국 감리교회 표집대상 노인인구 구성 비율

연회 구분	서울	서울 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 선교	합계
지방수	13	18	31	28	21	24	14	23	21	15	8	216
교회수	399	447	1,083	799	605	677	410	583	645	428	268	6,344
교인수	246,194	201,378	290,158	131,675	89,196	108,021	40,196	111,481	93,727	42,616	20,677	1,375,319
조사대상 교회수	20	18	23	20	15	31	12	15	9	10	13	186
노인수 전체교인수	1,928 8,426	1,681 6,579	928 3,124	1,072 7,554	1,293 5,303	1,751 4,747	386 1,348	3,927 14,468	1,235 3,634	413 1,482	512 1,969	5,126 57,934
노인 구성비 (%)	22.88	25.55	29.70	14.19	24.38	36.88	28.78	27.14	33.98	27.86	40.34	평균 26.10

2016년 표집대상 교회: 186교회, 교인수: 57,934명, 65세 이상 노인수: 15,126명, 평균 노인구성비: 26.10%

2023년 9월 기준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전과 이후의 노인대학 운영실태를 간략하게 파악하고자 한다. 현재 한국교회의 노인대학 운영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기에, 연구자가 참여하고 있는 사단법인 실버평생교육협회(이하 실버평생교육협회) 자료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추해 보려고 한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산하에 있는 실버평생교육협회에서는 전국 감리교회에서 운영하는 노인대학의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교육프로그램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처음에는 기독교대한감리회에 소속된 감리교회 112개 교회가 노인대학협의회 회원으로 2005년 9월 1일에 창립총회 및 세미나를 시작하였다(〈표 9〉 참조).

〈표 9〉 2005년 감리교회 노인대학협의회 회원수

연회 구분	서울	서울남	중부	경기	중앙	동부	충북	남부	충청	삼남	호남 선교	합계
노인학교수	15	15	26	18	5	10	1	7	6	6	3	112

이후 노인대학협의회는 사단법인 실버평생교육협회로 발전하였으며, 전국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감리교회를 대상으로 학술발표회 및 노인대학 지도자 세미나를 매년 2회(2월, 8월)에 시행하고 있다. 코로나 이전에 전국 감리교회에서 노인대학을 운영하는 교회는 대략 200여 곳이였다. 2000년대에 들어와서 학술발표회 및 노인지도자 세미나에 참석한 교회는 등록 기준 평균 30교회, 지도자 140명 정도 참석하였다. 그러나 2020년 2월 ~ 2022년 2월 코로나 팬데믹 기간에는 온라인으로 학술발표회 및 노인지도자 세미나를 진행하였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완화되기 시작한 2022년 8월 강원도 횡성에서 제30회 학술발표회 및 노인지도자 세미나를 다시 오픈하였고, 등록은 10교회 40명 정도 참석하였다. 그리고 코로나 19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종료된 2023년 8월 21일-22일까지 충남 대천에서 제32차 학술발표회 및 노인지도자 세미나에 등록 10교회 40명 정도 참석하였다(〈표 10〉참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5교회 정도는 노인대학 운영을 중단했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표 10〉 한국 감리교회의 노인대학 지도자 세미나의 참여 상황

	2005년	2000	2021-2022	2022	2023
등록 교회	112	30	온라인	10	10
참여 인원	300	140	세미나	40	40
인원 증감	0	-160	코로나 팬데믹	-100	-100

21세기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시대정신은 포스트모더니즘, 인구절벽 시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탈종교사회는 노인세대에게는 정서적, 경제적, 신앙적 차원에서 젊은 세대들과 공유하거나 공감하기 어려운 사회문화적 트렌드이다. 포스트모던 시대의 젊은이들에게 노인은 공감이 안되는 존재, 인구절벽 시대에 증가하는 노인은 젊은이에게 복지비용이 부담을 주는 존재이고, 신자유주의 시대에 능률과 성과를 위해 분주한 젊은이에게 노인은 효율성 없는 잉여인간이며, 탈종교시대 노인은 제도종교의 전통을 유지하려는 권력 집단으로 치부될 수도 있다. 이렇게 21세기 한국사회에서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 된 노인들에게 한국교회는 그들에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는 노인 인구가 가장 많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대간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측되는 베이비부머 세대들(1953~1964년생)의 영혼구원을 위한 선교와 신앙성장을 위한 신앙 교육프로그램 제공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V.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

21세기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교회교육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과제와 방향은 무엇인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교회의 쇠퇴와 기독교교육의 위기는 20세기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된 시대적 상황, 곧 ① 인구절벽 시대: 노인 증가 vs. 젊은이 감소, ②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시대의 특징: 시장주의, 무한경쟁, 효율성, 승자독식, 사회적 양극화, ③ 탈종교시대: 탈기독교 현상, 공동체성 약화, 기독교 교인수 감소 등은 한국교회의 쇠퇴와 함께 기독교교육의 위기를 불러일으켰다. 거기에 2020년 초에 시작된 ④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교회에 치명타를 날린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네 가지 역사적 상황은 한국교회 기독교교육 현장에 큰 위기로 다가왔다. 그것은 ① 주일학교의 쇠퇴와 학생수 감소, ② 젊은이의 감소와 신학교육의 위기에 따른 미래 교회 지도자 양성의 어두운 전망, ③ 교회의 중심 세대인 성인(중년) 교인수의 감소 현상이다. 그러나 그들이 보여준 적극적인 주일예배 참여와 소그룹 활동은 희망의 불씨를 남겨두고 있다. 그리고 ④ 노인 신자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을 위한 관심과 신앙교육의 부족한 대안이 미래를 더 어둡게 한다. 그러면 오늘날 한국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가 직면한 위기 상황에서 추구해야 할 기독교교육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은 무엇인가?

1. 주일학교 신앙교육의 새로운 전환: 가정과 세대를 통합하는 신앙교육으로

21세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축소된 주일학교 신앙교육은 단지 코로나19로 부터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것 때문이 아니라,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른 연관성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학령인구 감소는 2022년 현재 출산률 0.78이라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고려할 때, 지금까지 한국교회 주일학교에서 접근해왔던 방식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 특히, 교회 성장과 연계된 외형적 학생수 늘리기, 학교형 교육 범례, 짧은 시간 교사 주도의 성경 내용 전달방식의 수업, 시대적 환경에 부적절한 인습적 교육방법 등을 탈피한 새로운 접근 방식이 요청된다.

김정준(2021)은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미래세대를 위한 주일학교 운영방안을 교회가 아니라 가정을 중심으로 교육활동이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김정준, 2021, 29-31): ① 미래세대 주일학교의 교육목적은 교회성장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양육하는데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일차적 책임은 부모가 자녀들의 신앙을 바르게 양육하라고 명하신 것이다(신 4:9-10; 6:4-9; 32:7; 잠 1:8; 6:20-21). ② 미래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내용은 성서의 내용 전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서의 내용을 깨닫고, 경험하고 확신케 하는데 있다. ③ 미래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의 구조는 교실에서 교사 주도의 일방향 교수-학습형태가 아니라 가정과 신앙공동체가 상호협력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④ 미래세대 신앙교육의 주도자는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부모이며, 주일학교 교사 혹은 목회자는 부모와 학습자를 지원하는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한다. 요컨대,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올바른 신앙형성의 주체가 되도록 노력하고, 교회는 부모의 신앙교육을 지원하는 형태로 가정 친화적 구조로 전환해야 할 필요가 있다(장신근, 2012, 198-199; 김정준 2021, 31).

또 다른 하나는 세대를 통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다. 조부모-부모-자녀로 이어지고 통합되는 대가족 형식의 통합적 접근 방식이다. 오랜기간 어린이 사역에 헌신했던 양승헌 목사(서울세대로교회)는 한 세대의 믿음이 다음세대에 전달 되려면 세대가 분리된 교육 환경이 아니라 대가족식 교육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20년간 어린이부터 노년까지 대가족식 교육환경에서 절기 때를 포함하여 매년 10여 차례 세대통합 목회를 지속해오면서 이에 대한 확신을 얻었다고 하였다(양승헌, 2023; 국민일보, 2023, 9.13.). 일찍이 1970년 미국의 웨스터호프(John H. Westerhoff III.)는 다음세대에 신앙을 대물림하려면 학교형 범례를 따르는 교회학교 방식이 아니라 신앙공동체 안에서 자라야 함을 강조하였다(Westerhoff, 2002, 32; 45).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주일학교 신앙교육이 무너진 상황에서 한국교회가 미래세대를 바르게 세우기 위한 새로운 신앙교육의 방식은 가정친화적 신앙교육이나 대가족 형식의 통합적 접근도 필요하다.

2. 신학교육의 새로운 전환: 지식교육에서 영성훈련으로

21세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큰 위기는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한 신뢰와 헌신이 사라지고, 기독교적 진리나 신앙에 대한 회의와 거부감으로 교회를 떠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젊은이들의 기독교적 진리나 신앙에 대한 회의나 거부하는 포스트모더니즘이라는 해체와 보편담론의 거부라는 시대정신이 그들의 영혼에 투영된 결과일 수도 있다. 또한 세계화와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운 자본주의 시장원리가 지배하는 경제체제 아래 효율성과 성과, 혁신과 이익을 위한 무한경쟁, 20:80의 승자독식 사회에서 지치고 시달려 영혼을 잃어버린 청년들에게 기독교 진리와 가르침을 교회는 신실하고, 효과적으로 다가가야 한다. 그들에게 진정성 있는 충분한 설득과 공감을 제공해야 한다. 오늘날 한국사회의 많은 젊은이들이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 기존 교회에 다니던 청년들조차 교회를 떠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한국교회 젊은이들이 교회에 대한 낮은 호감도와 신뢰도의 하락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몸 된 교회에 대한 헌신과 충성을 기대할 수 없게 한다. 그 결과가 바로 교회의 미래 지도자를 양성하는 신학대학의 지원자가 급감하고 미달사태를 가져온 것이다. 이런 현상은 미래 한국교회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젊은이들의 교회에 대한 충성과 헌신, 그리고 소명감의 상실은 결국 미래 교회 지도자의 길에 들어서는 신학에 대한 무관심과 외면으로 귀결된다. 그것은 곧 교회가 젊은이들의 신앙교육에 실패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아울러 신학대학 운영 주체자로서 행정가들과 교수들이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오늘날 한국교회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대개 신학대학들의 교육과정과 교육 내용이 지나치게 지적인 면으로 경도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학자들은 신학교육의 패러다임을 지식을 전달하는 교육형태에서 영성을 함양하는 교육으로 전환해야 할 것을 강하게 주문하고 있다(왕대일, 2010, 3-4; 유해룡, 2010, 99-126; 여성훈, 2010, 127-145; 이원일, 2010, 147-167).

이런 맥락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에 새롭게 재건할 한국교회 신학교육의 과제는 먼저, 한국교회 지도자들이 스스로 자정하는 모습과 진지하고 신실한 영적 자세를 견지하는 일이 급선무이다. 윗물이 맑지 않으면 결코 아랫물이 맑을 수 없기 때문이다. 교회가 스스로 영적 기풍을 확립하고 사회적 신뢰를 얻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런데 그 길은 참으로 오랜 시간이 걸리는 과업이다. 다음으로, 신학대학의 교수와 교육과정, 그리고 교회와 연결된 교육시스템이 성서의 가르침과 복음의 정신, 초대교회와 종교개혁자들의 전통을 보존·계승하고, 발전시키는 일이다. 한마디로 근원의 정신으로 돌아가도록 노력하는 일이다(Ad Fontes!). 성서의 가르침과 초대교회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의 영성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중년기 성인의 신앙교육 재점화: 예배와 소그룹을 통한 신앙의 활성화

2023년 5월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이후, 한국교회는 3년 4개월 동안 제한되었고, 빈사 상태에 빠진 주일예배와 기도회, 소그룹모임(속회, 구역예배), 세미나, 부흥회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회복하기 위하여 발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사람의 속성은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다.”는 말이 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도 사람의 본성과 익숙해진 습관을 변화시키는데 참 어려움을 겪는다. 팬데믹 기간에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오랜 기간 주일예배와 기도회는 물론 소그룹모임, 교육, 봉사, 친교 등 모든 활동이 제한되거나 멈춰야 했다. “모든 것은 멈출 수 있고, 정지될 수 있고,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사고가 기독교회의 절대 신앙 영역에 들어와 자리를 잡기 시작한 것이다.

사실,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신앙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주일성수(예배)와 복음 전파(전도)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이원규, 2010, 92). 아울러 한국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선교, 교육, 봉사, 친교 등 모든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미덕으로 알고 열심히 생활해왔다.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은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과 생활을 안일하게 변화시켰다. 그동안 교회에서 자유롭게 누리던 주일예배, 새벽기도회, 수요예배, 금요기도회, 소모임, 성가대, 교회학교 등 모든 것은 국가와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활동이 제한되거나, 중지되거나, 변경되어야 했다(김정준, 2020, 7). 국가와 방역 당국의 지침에 따라 교회의 모든 활동은 강제적으로 멈추거나, 혹은 TV방송, 유튜브, SNS, 뉴미디어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되었다. 이러한 교회의 뉴미디어 온라인 방식의 예배와 모든 활동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치였지만, 신자들은 대안적 신앙생활의 편리함에 빠져 신앙생활이 점차 안일함에 빠져들게 되었다. 그것은 그동안 교회에 출석하여 드리던 직접 참여의 대면 예배가 당연한 신앙생활의 스타일이었다면, 이제 간접 참여의 비대면 예배가 새로운 신앙생활 스타일, 곧 ‘뉴 노멀’(New Normal)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이제 코로나19 팬데믹이 종식된 상황에서 한국교회는 어떠한 신앙생활의 세계로 나아갈 것인가?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세계에 불어닥친 전염병들 1720년경 유럽의 마르세유 흑사병, 1820년경 인도의 콜레라, 1920년경 스페인 독감 대유행 등의 큰 피해에도 불구하고 인류사회는 다시 회복된 일상의 세계로 돌아갔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비록 코로나19 팬데믹이 우리에게 많은 희생과 피해를 남겼지만, 우리는 건강한 일상의 삶을 빨리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3년 5월 11일 코로나19 종식 선언 이후, 4개월이 지난 2023년 9월 현재 한국교회는 주일예배와 기도회, 소그룹모임 등 모든 활동이 비교적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 그중에 주일예배와 소그룹모임에 가장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세대는 중년기 성인 신자들이었다. 중년기

신자들은 현재 한국교회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세대이다. 그들은 코로나19 팬데믹에도 건강하게 생존하였고, 인구절벽 시대에 부모세대 노인을 부양하고 동시에 자식 세대 젊은이들을 양육하였다. 신자유주의 글로벌 시장의 치열한 경쟁과 승자독식의 양극화 사회에서도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잘 지켜냈다. 그들은 탈종교화 시대의 반기독교 정서가 팽배한 불신앙의 세상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냈다.

에릭슨(Erik H. Erikson, 1902-1994)은 이들 중년기의 사회심리적 특징을 ‘생성감 대 정체’(Generativity vs. Stagnation)로 설명하였다. 여기서 생성감이란 다음 세대를 낳고 이들을 지도하는데 많은 관심을 갖는 심리적 특성이다. 즉 어린 다음 세대들을 돌보고, 지도하고 격려하면서 성숙하도록 돕는 일에 관심이 많다는 것이다.(Erikson, 1989, 31-311). 그런 맥락에서 한국교회는 중년 세대 신자들에게 자신이 알고, 체득한 신앙의 내용과 경험들을 젊은 세대들에게 나누고, 전수하여 한국교회가 건강하게 회복되고, 성장하는 기회가 되도록 돕는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일대일 신앙 양육반, 신앙 간증 토크쇼 등과 같은 교육프로그램 같은 것들이다.

4. 교회 노인교육의 새로운 전환: 돌봄 대상에서 창조적 신앙생활로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나라 모든 국민의 삶에 영향을 주었지만, 그 가운데 기저질환이 있거나 고령의 노인 환자들에게 더 치명적인 영향을 주었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이 보고한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31,232명 중 60대 이상 사망자는 29,259명(93.69%)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질병관리청, 2022). 노인이 코로나19 감염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으로 분류되는 것은 노인 대부분이 만성질환, 노인성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장혜영, 최정숙, 2022), 면역기능이 상대적으로 떨어져 그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유병선, 정요한, 정규형, 2021).

이러한 흐름에서 한국교회의 노인 신자들 역시 많은 어려움과 희생을 당했다. 이제는 코로나19가 공식적으로 종식되었기 때문에 마스크 없이 대면하여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노인 신자들은 모든 면에서 취약한 상태에 놓여 있다. 흔히 노인이 겪고 있는 곤란을 ‘사고’(四苦), 즉 ① 경제적 빈곤: 소득상실에 따른 수입 감소, ② 건강상실: 신체적, 정신적 노화로 인한 건강 악화, ③ 고립 및 소외감: 홀로 남겨진 상태에서 느끼는 사회적, 심리적 고립 및 소외감, ④ 역할 상실: 가정, 사회에서 주어진 역할을 상실하면서 다가오는 정신적 공허감 등이 그것이다(보건사회부, 1993, 4).

그러나 21세기 한국사회의 변화된 시대적 상황으로 인구 절벽시대의 노인인구 증가와 젊은 인구의 감소,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탈종교 현상 등은 한국교회 노인 신자들에게 큰 어

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 첫째, 인구 절벽시대의 노인인구 증가와 젊은 인구의 감소는 무엇보다 젊은이들에게 노인들은 부양해야 할 사회적 비용 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세대간 갈등 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글로벌 시장의 경쟁 원리가 작동하여 효율성과 성과를 위하여 무한경쟁의 치열한 삶을 살아가는 시대에 노인은 더 이상 가치와 효율성이 없는 잉여인간으로 전락한다(김정준, 2017, 164-165).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회나 가족의 안전망에서 배제된 노인들은 황혼이혼, 독거노인, 고독사, 자살 등 하류노인으로 전락하게 된다(김정희, 216, 40-41). 셋째, 탈종교시대에 젊은이들은 개인적인 영성은 추구하지만, 제도종교나 종교적 권위에 대하여 거부감을 갖고 있다. 오늘날 탈종교화 현상이 두드러진 한국사회에서 젊은이들의 반기독교 정서와 교회를 등지고 떠나는 현상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한다(정재영, 2012, 148-153). 아울러 서구사회가 기독교회의 노령화로 노인들만 남고 교회가 비어간 공동화 현상을 우리도 예측하여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가 노인세대를 위한 기독교교육의 과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한국교회의 노인을 위한 기독교교육은 그들이 처한 삶의 실존적 고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노인들이 처해 있는 네 가지 삶의 고통은 경제적 빈곤, 건강상실, 고립 및 소외감, 사회적 역할 상실에 따른 공허감 등이다. 인간의 기본적 삶의 조건이 무너지면 인간의 존엄성도 무너지기 때문이다. 빈곤, 질병, 기아, 고립, 소외된 삶의 어두운 그늘에 놓인 노인들에 대한 관심과 그에 적절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 더 나아가 오늘의 시대적 상황에서 어려움에 노출된 노인들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교육프로그램 제공이 필요하다.

다른 하나는, 한국교회의 기존 노인 신자들은 제도종교의 권력을 유지하려는 자세보다는 시대적 상황 안에 살아가는 젊은이들을 이해하고 수용하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의 올바른 성장을 위하여 노인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이해하고, 대화를 나누며,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현상이 되지 않으면 건강한 미래를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VI. 나가는 말

2023년 9월, 고통스러웠던 코로나19 팬데믹이 공식적으로 종료된지 5개월이 지난 시점에 한국교회의 붕괴 수준에 있던 주일예배와 각종 기도회, 소그룹모임, 그리고 기독교교육 현장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회복을 위하여 발 빠른 모습을 보이고 있는 한국교회에 경외감을 느낀다. 위기의 시대에 지속 가능한 신학교육의 길은 무엇인가? 사실, 한국의 신학교육

은 한국교회와 분리된 또 다른 영역의 대학교육은 아니다. 일반 대학교육과 연계되어 있지만, 역사적으로 신학은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었으며, 현재도 신학교육은 종교학과 같이 일반 학문으로서 연구 분야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교회와 깊이 연관된 학문 분야이다. 본고는 한국교회와 연관성 속에서 21세기 한국교회 기독교교육의 쇠퇴 현상과 그 원인,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한국교회의 아동기, 청년기, 중년 성인기, 노년기 등 각 세대별 신앙교육의 새로운 과제와 방향을 탐구하였다. 21세기 위기 가운데 처한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한국교회를 사랑하시기에 회복하실 것과 또한 놀라운 일을 이루어주시길 것을 믿는다.

참 고 문 헌

- 강창동. (2011). 고전적 자유주의 관점에서 본 신자유주의 교육관의 이념적 한계. *교육사회학연구*, 21, 1-23.
- [Kang, C. D. (2011). A study on ideological limitation of views on neoliberal education in the light of classical liberalism.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21, 1-23.]
- 강용원. (2022). 세계화와 기독교교육의 과제. *기독교교육논총*, 26, 21-55
- [Kang, Y. W. (2022). Globalization and the tasks of Christian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26, 21-55.]
- 강희천. (1991). *기독교교육의 비판적 성찰*.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Kang, H. C. (1991). *Critical reflection on Christian education*.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권수현 외 5인(편). (2010). *친밀한 적: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일상이 되었다*. 서울: 도서출판 이후.
- [Kwon, S. H., Kang, M. Y., Kim, K. Y. J., Park, S. I. & Jung, S. H. (2010). Intimacy enemy: How did neoliberalism become a routine? Seoul: Yihoo.]
- 김기석. (2009). *종의 기원 vs. 신의 기원*. 서울: 동연.
- [Kim, K. S. (2009). *Origins of species vs. origins of God*. Seoul: Dong Yeoun.]
- 김만형. (2005). *SS혁신보고서*. 서울: 에듀넥스트.
- [Kim, M. H. (2005). New report on sunday school innovation with it's worship, nurturing, evangelism & system. Seoul: Edunext.]
- 김재곤. (2003). 신자유주의 세계화 문제에 따른 기독교윤리의 모색. 미출판 석사학위논문. 영남신학대학교 대학원.
- [Kim, J. G. (2003). A search for Christian ethics according to the problem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Unpublished Th. M.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Youngnam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 김정준. (2008). *용 심리학과 영성교육*. 서울: 이머징북스.
- [Kim, J. J. (2008). *Jungian psychology and spirituality education*. Seoul: Emerging Books.]
- 김정준. (2017). 21세기 한국사회와 노인목회의 새로운 과제와 전망. *기독교교육논총*, 50, 155-199.
- [Kim, J. J. (2017). Korean society in the 21th century and new tasks and directions for pastoral care for older generation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50, 155-199.]
- 김정준. (2020). 머리말. (pp. 7-15). 김정준 책임편집. *코로나19를 넘어서는 기독교교육*. 서울: 동연.
- [Kim, J. J. (2020). Preface. (pp. 7-15). Chief Editor. Kim, J. J. *Christian Education in Korean Church Beyond Covid-19 Pandemic*. Seoul: Dong Yeoun.]
- 김정준. (2021). 다음 세대와 한국교회 주일학교의 새 전망. *기독교교육논총*, 67, 11-44.
- [Kim, J. J. (2021). New perspectives on sunday school of korean church for next gener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7, 11-44.]
- 김정희. (2016). 독거노인의 고독사 시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신학논단*, 85, 37-63
- [Kim, J. H. (2016). What is a role of church in the time of solitary death of elder who lives alone?. *Theological Forum*, 85, 37-63.]
- 박승인. (2019).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직면한 상황신학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조직신학논총*, 54, 53-96.
- [Park, S. I. (2019). A new paradigm of the contextual theology confronted with the neoliberalistic globalization. *Korean Journal of Systematic Theology*, 54, 53-96.]
- 보건사회부. (1993). 노인복지 추진현황 및 정책방향. 서울: 보건사회부 노인복지과.
- [Ministry of Social Health Affairs. (1993). Status and policy direction of elderly welfare. Seoul: Department of Elderly Welfare, Ministry of Social Health Affairs.]

- 손원영. (2010). **기독교교육의 재개념화**.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 [Sohn, W. Y. (2010). *Reconceptualizing of Christian education*.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 양승현. (2023). 국민일보. 2023.9.13.
- [Yang, S. H. (2023). KUKMINILBO, 2023.9.13.]
- 여성훈. (2010). 영성 커리큘럼 디자인 난제로서의 영성 이해의 양극적 정서: '2009 KAATS 콘퍼런스' 주제의 실현을 위하여. **한국신학논총**, 9, 127-145.
- [Yeo, S. H.(2010). The bipolar emotion of understanding spirituality as a difficulty in designing a spiritual curriculum: For the realization of the subject 2009 KAATS conference. *Korea Journal of Theology*, 9, 127-145.]
- 왕대일. (2010). 신학교육, 그 패러다임의 전환: 지식교육에서 영성 함양으로. **한국신학논총**, 9, 3-4.
- [Wang, D. I. (2010). Theological education, the paradigm shift: From knowledge education to spiritual cultivation. *Korea Journal of Theology*, 9, 3-4.]
- 유병선, 정요한, 정규형. (2021). 감염병 발생과 노인복지시설의 대응 현황 및 과제. **장기요양연구**, 9, 87-113.
- [Yoo, B. S., Jung, Y. H. & Jeong, K. H. (2021).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infectious disease outbreak and elderly welfare facilities. *The Journal of Long Term Care*, 9, 87-113.]
- 유해룡. (2010). 영성 형성을 위한 신학교육의 한 제안. **한국신학논총**, 9, 99-126.
- [Yoo, H. R.(2010). A proposal of theological education for Spiritual formation. *Korea Journal of Theology*, 9, 99-126.]
- 유호근. (2009).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패러다임: 비판적 검토와 대안적 전망. **아테연구**, 16-1, 123-140.
- [Yoo, H. K.(2009). Neoliberal globalization paradigm: Critical evaluation and alternative prospect. *Journal of Asia-Pacific Studies*, 16-1, 123-140.]
- 이원규. (2010). **한국교회의 위기와 희망**. 서울: KMC.
- [Lee, W. K. (2010). *Crisis and hope of korean church*. Seoul: KMC.]
- 이원일. (2010). 통합적 영성 함양 신학대학원 교육과정: '신학교육의 문제와 개선 방향'. **한국신학논총**, 9, 147-167.
- [Lee, W. I.(2010). Curriculum for the cultivation of integrated spirituality graduate school of theology: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directions of the theological education. *Korea Journal of Theology*, 9, 147-167.]
- 임희국. (2002). 세계화에 대응하는 교회들의 네트워크. **교육교회**, 301, 8-12.
- [Lim, H. K. (2002). Network of churches against globalization. *Educational Church*, 301, 8-12.]
- 장윤재. (2008). 모든 세계화는 좋은 것인가? - 신자유주의 세계화 담론에 대한 신학적 성찰. **대학과 선교**, 14, 160-179.
- [Chang, Y. J.(2008). Is all globalization a good thing? : A theological reflection on the new liberal globalization discourse. *University and Mission*, 14, 160-179.]
- 장혜영, 최정숙. (2022).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노인요양시설 사회복지사의 직무 경험에 관한 질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33, 3-32.
- [Chang, H. Y. & Choi, J. S. (2022). A qualitative study on the job experience of social workers in elderly care faciliti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Journal of Social Science*, 33, 3-32.]
- 정재영. (2012). **한국교회 10년의 미래**. 서울: SFC.
- [Jung, J. Y. (2012). *Korean church, future of 10 years*. Seoul: SFC.]
- 장신근. (2012). 가정과 교회를 연계하는 기독교교육모델. (161-207). 고원석 외(편). **기독교교육의 새 모델들**. 서울: 장로회신학대학교 기독교교육연구원.
- [Jang, S. K. (2012). A model of Christian education connected with between family and church. (Ed.) Koh, W. S. *New models of Christian education for changing generations in korean church*. Seoul: Presbyterian University and Theological Seminary Christian Education Research Institute.]

- Dawkins, Richard. (2006). **만들어진 신**. 이한음 역. 서울: 김영사. (원전 2007 출판).
 [Dawkins, Richard. (2006). *The God delusion*. Translator: Lee, H. E. Seoul: Gimm-young Publishers. (Original book published in 2007)]
- Downey, Michael. (2001). **오늘의 기독교 영성 이해**. 안성근 역. 서울: 은성.(원전 1997 출판).
 [Downey, Michael. (2001). *Understanding Christian spirituality*. Translator: An, S. K. Seoul: Eunsung Publications.] (Original book published in 1997)]
- Erikson, Erik H. (1989). **아동기와 사회**. 윤진·김인경 역. 서울: 중앙적성출판부.(원전 1950 출판).
 [Erikson, Erik H. (1989). *Childhood and society*. Translator: Yoon, J. & Kim, I. K. Seoul: Jungang Jeoksung Publishers. (Original book published in 1950)]
- Groome, Thomas H.(1980). *Christian religious education: Sharing our story and vision*. San Francisco: Harper & Row.
- Harari, Yubal. N. (2017). **호모 데우스: 미래의 역사**. 김명주 역. 서울: 김영사.(원전 2015 출판).
 [Harari, Yubal. N. (2017). *Homo deus: A brief history of tomorrow*. Translator: Kim, M. J. Seoul: Gimm-young Publishers. (Original book published in 2015)]
- Harris, Maria. (1997). **교육목회 커리큘럼**. 고용수 역.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원전 1997 출판).
 [Harris, Maria. (1997). *Fashion me a people: Curriculum in the church*. Translator: Koh, Y. S. Seoul: Publishing House The Presbyterian Church of Korea. (Original book published in 1997)]
- Marx, Karl & Engels, F.(1989). **공산당선언**. 남상일 역. 서울: 백산서당. (원전 1848 출판)
 [Marx, Karl & Engels, F.(1989). *Communist manifesto*. Translator: Nam, S. I. Seoul: Baeksan Books. (Original book published in 1968)]
- Marx, Karl.(1844). *Zur kritik de hegelschen rechtphilosophie. Einleitung*. Berlin: Dietz Verlag.
- Marx, Karl.(1976). Karl Marx/ Friedrich engels-werke. Band 1. Berlin/DDR. Dietz Verlag.
- Miller, Donald G. (1988). **교회의 본질과 사명**. 박상증 역. 서울: 대한기독교서회.(원전 1957 출판)
 [Miller, Donald G. (1988). *The nature and mission of the church*. Translator: Park, S. J. Seoul: The Christian Literature Society of Korea. (Original book published in 1957)]
- Sinclair, David. A. & LaPlante, Matthew D. (2020). **노화의 종말**. 서울: 부키.(원전 2019 출판).
 [Sinclair, David. A. & LaPlante, Matthew D. (2020). *Lifespan: Why we age-and why we don't have to*. Translator: Lee, H. E. Seoul: Bookie Publishing House.(Original book published in 2019).]
- Westerhoff, III. John H. (2002). **교회의 신앙교육**. 정웅섭 역. 서울: 대한기독교교육협회.(원전 1976 출판).
 [Westerhoff, III. John H. (2002). *Will our children have faith?* Translator: Chung, W. S. Seoul: KCCE. (Original book published in 1976)]
- 강원일보. 2023.5.12.
 [kwnews. 2023.5.12.]
- 나무위키. “대한민국/고령화.” 2023.9.4. 접속.
 [namuwiki.“Republic of Korea/Aging.” from <https://namu.wiki/> 2023.9.4.]
- 넘버즈. (2023). **한국인의 종교현황과 의식. 개신교인 인구비율, 최악의 경우 10년 뒤 10%로 추락할 수 있어!** (2023.9.5.), 206.
 [Numbers. (2023). Religious status and consciousness of Koreans - Proportion of the Protestant population, worst case, could fall to 10% in 10 years! (2023, 206).]
- 동아일보. 2023.3.24.
 [Dongalbo. 2023.3.24.]

통계청.(2022). KOISIS. 노인인구수 추계 자료.

[Statistics Korea. (2022). KOISIS. Data of Elderly Population Estimating.]

CBS노컷뉴스.(2021). “[기획] ① 학령인구 감소·신뢰도하락 ...위기의 신학대학들,” CBS노컷뉴스, 2021.4.7.

<https://www.nocutnews.co.kr/news/5531497> 2023.9.7. 접속.

[CBS nocut News.(2021). “(Enterprising Series 1) Reducing the number of school-age students, decreasing the number of confidence ... Theological University & Seminary in crisis.” from <https://www.nocutnews.co.kr/news/5531497> 2023.9.7.]